

“대장경 판각지 총렬사 뒷터”

이종철 교수 주장 “강화 선원사지 위치 재검토”

사적 제259호로 지정된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선원사지를 팔만대장경의 판각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교, 역사, 고고학계는 물론 문화재청까지도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사진) 교수는 3월 29일 ‘선원사 위치 비정에 대한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팔만대장경의 판각지는 현 선원사에서 3킬로미터 더 떨어진 선원면 선행리 총렬사 뒷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77년 사적지 지정 이후 ‘선원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관련 학계의 목시적인 반응을 공개 토론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재청은 최근 ‘5월 이

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적지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강화군 판각지의 위치 지정뿐만 아니라 사적지 재조정의 첫 사례가 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문화연구원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우선 <강화부지>와 <복은집>에서 행촌 이암(1297~1364)의 행적과, 그를 주제로 한 시문에 주목했다.

이암은 고려 말까지 선원사 경내에서 살았던 거사인데, 이교수에 따르면 이색의 시에서 이암이



살고 있는 거처의 풍광을 현 선원사지로 지정된 선원면 지산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즉 사적으로 지정된 지산리 일대는 판각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이 교수는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동국이상국집>, <동문선>, <여사제강>, <목은집>, <가정집> 등의 지리서와 문집에 기록된 선원사의 풍광, 지리적 특징 등을 일일이 분석·비교하고 수차례에 걸친 현장 답사를 토대로 선원면 선행리 총렬사의 뒷 터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서에서 선원사는 부남팔리(府南八里), 총렬사는 부



이종철 교수가 대장경 판각지로 지목한 ‘총렬사 뒷터’. 이곳에서는 사찰 전각의 부재로 사용됐을 석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칠리(府南七里)로 기록되어 있고, 문집에 나타난 선원사의 풍광이나 지리적 특징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총렬사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총렬사 일대서 민가의 주춧돌로 쓰이거나 밭에 널려진 대형 주춧돌, 돌쩌귀(대문 밑 받침), 계단석, 장석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총렬사 일대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필

요성도 제언했다.

한편 96년부터 지산리 선원사지를 발굴하고 있는 동국대 박물관측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발굴단은 아직까지 판각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발굴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과 유구를 볼 때 중요 사찰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조선 구법승의 포교 흔적

만공선사의 태산불교

신근재 <동국대 일본학부 교수>

태산을 내려오다 보면 산기슭에 ‘태산 죽림사 영림구’라는 간판이 보인다. 절은 간 곳이 없고 산림을 관리하는 건물만 있다. 절터의 규모로 보아 옛날에는 웅장함을 자랑하는 대가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넓은 절터 잡초만 무성

죽림사는 한국의 승려 운공(雲公 滿空, 1388~1463) 선사에 의해 중창된 이후 태산불교의 중심지로 떠오른 곳이다. 그런데 산야는 옛날과 다름이 없으나 법당과 스님은 지금 찾아볼 수 없고 잡초만 무성하다. 도교의 영산 태산에도 걸출한 불교의 지도자가 나타나 사찰을 중건하고 상당한 교세를 자랑한 적이 있었다. 명나라 때 조선에서 건너간 만공 선사가 그 주인공이다.

불적답사팀 일행은 만공 선사의 유적을 찾아 태산 아랫자락에 자리잡은 보조선사(普照禪寺)로 발길을 옮겼다. 보조선사는 육조시대(220~604)에 창건된 사찰이다. 금나라 대정연간(1161~1189)에 중건돼 태산의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풍운의 정자가 빙옥상(憑玉祥)이 은거했던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보조선사 산문 안쪽 오른쪽에 증개산기(重開山記)란 비석이 있다. ‘증개산기’란 ‘태안주 보조선사 증개산 제일대 운공 만공선사 탐비명기(泰安州普照禪寺重開山第一代雲公滿空禪師塔碑銘記)’의 줄임 말이다. 이 만공선사 탐비는 근년에 우리나라 학계에 알려지면서 500여 년 간의 배일을 벗고 쇄국시대 한 구법승의 드라마틱한 행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운공 만공선사는 범명 그대로 구름처럼 허공처럼 불법에 의지하며 살다가 간 분이다. 비문에 의하면 만공선사는 명나라 영락연대(1402~1424)에 조선에서 바다를 건너와 금나라사를 하사 받는 등 황제의 환대를 받고 남경의 국찰 천계사(天界寺)로 파견되어 주지를 역임하였다. 영락제가 서거하자 천하의 조사(祖師)들을 참방하고 태산에 이르러 폐허가 된 죽림사(竹林寺)와 보조선사(普照禪寺)를 다시 일으켜 수도와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만공선사는 이 곳에서 20여 년 간 출입을 끊고 사방의 관리자 지방의 장로들을 교화하였다. 이에 지방의 유지들이 앞다투



어 스승의 예로 대우했고, 선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보조선사에 전각을 세우고 불상을 봉안했다. 만공선사는 1463년(연순7)에 ‘만물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빛은 온 누리에 빛나니, 지금도 없고 또한 예전에도 없다’는 계승을 남기고 75세를 일기로 보조선사에서 입적하였다.

이 곳의 ‘증개산기’ 비는 선사가 열반한지 약 반세기 후인 1511년(정묘 6)에 그의 제자 오정(梧靜, 원관(圓寬) 등)에 의해 건립됐다. 이 비는 원래 보조선사의 서남 방에 세워진 묘탑 옆에 있었는데, 뒤에 보조선사 산문 안쪽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상이 한국의 승려로서 명나라에 들어가 활동한 만공선사의 행적에 대해 비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대강이다.



보조선사에 세워진 만공선사의 ‘증개산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4세기 이래로 동아시아 나라들은 쇄국의 경향으로 바뀌었다. 명나라 왕조는 공식적인 조공사절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금지했다. 심지어 이공도 요동지방을 경유하는 육로 이외에는 ‘일체 허가 없이 바다에 조각배도 띄우지 못한다’고 할 정도였다.

보조사 경내 비석과 부도

이처럼 철저한 대외적 폐쇄정책 아래서 만공선사는 어떻게 배를 타고 건너가 구나 황제로부터 이렇게 웅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속명은 무엇이며, 불가의 사제관계는 어떠하였으며, 중국으로 들어간 동기 및 경위는 무엇인가? 선사의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다.

어쨌든 신라시대는 말 할 것도 없고, 고려왕조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불교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구법승이 중국에 들어간 예를 찾기 어렵다. 아마도 만공선사가 거의 유일한 경우가 아닌가 싶다.

인각사가람배치 ‘남-북’ 아닌 ‘동-서’

조계종 발굴조사단 6일 현장지도위원회

경북 군위 인각사 성역화 사업을 위한 정밀지표조사를 진행 중인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해사 문화부장)은 6일 지도위원회와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지도위원회를 갖는다. 인각사 전체 사역을 둘러싸고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의문점들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자리라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인각사는 92~93년 경복대가 대웅전 주변에 대해 시·발굴 조사를, 98년 중앙승가대가 미륵당 주변을 비롯해 전체 사역에 대한 시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중앙승가대는 당시 “남-북 축을 따라 대웅전이 북쪽을 바라보고 들어선 가람형태”고 밝혔다.

하지만 지표조사 과정에서 일련 스님 주석 당시 대웅전의 위치가 지금 알려진 위치와 다르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조사단은 “문지(門地)가 서쪽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전체적

인 가람배치가 동-서 축을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대웅전을 비롯한 몇몇 주요 건물도 이전 조사와는 위치가 다를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단 박순호 책임연구원은 “인각사 성역화 작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전체 사역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도위원회는 “전체 사역을 밝히기 위한 시·발굴 조사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영광 불갑사 조사 불교전적 119종 발견

백제불교의 최초 전래지로 전해지고 있는 전남 영광 불갑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동국대 박물관은 불갑사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광군의 의뢰를 받아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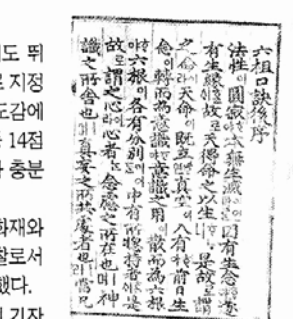
이번 조사를 통해 모두 119종의 불교전적이 발견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단일 사찰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불사가 한꺼번에 발견된 사실은 흔치

않다.

관중수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6종 외에도, 조선 세조 때 강경도감에서 찍어낸 금강경언해(사진) 등 7종 14점이 보물급으로 평가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박물관은 덧붙였다.

신은영 책임연구원은 “각종 문화재와 기와 조각 등을 통해 고려시대 거찰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중국불교 2000년’ 동국대 도서관 소장

중국 불교 2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국불교 2000년·사건>이 최근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됐다. 지금까지 도서관이 사들인 신간 가운데 970만원이라는 최고의 가격으로 구매된 이 책은, 중국의 불교 전래 20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중국불교협회의 역작이다.

2000년 한정 발간으로 희소 가치도 더해진 이 책은 총 4천여 쪽의 분량을 신문대판 크기의 단행본으로 엮은 것으로, 북경시(市)를 비롯해 3개 시(市), 23개 성(省), 6개 자치구 그리고 홍콩과 대만 등에 있는 1000여 개의 사찰의 스님, 불상, 불화, 관련 사료나 설화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1만 5천여 개의 화보는 중국불교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알지 않더라도 오늘의 중국불교를 소상히 알게 한다. 또한 중국 불교를 이끌고 있는 200여 명의 선사들의 불교 전래 2000년을 축하하는 휘호는, 그 내용에서 중국 선불교의 진면목을 보게 한다.

오종욱 기자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 神示出刊 改訂增補版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指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임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미 일어날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절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함으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 약속인이 올지, 안 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 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한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일 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일출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 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무속인·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흑색 표지·양장제본·공박·2000페이지·미색용지·옵셀인쇄)
- 입금처: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러
- 배 달: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02)993-8680
- 주 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문 대표 김 나 러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책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 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으나,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敎卜子 曉史先生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問 율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土)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일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더 쉽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 테이프도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오.

-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